



포항월빙식품 과메기

지식경제부 실시 2009 지역특구 사업평가
포항구룡포 과메기 산업특구 '우수특구' 선정



열린 포항

www.ipohang.org

과메기

통통한 뱃속 찬바람 든다
차가운 달빛에 비늘 빛난다
생의 허구를, 바람의 탐닉을 침묵으로 몸 갈피마다 채운다

중독되어 꿈꾸던
화려한 날들이 매운바람에 얼었다가 녹았다가!
온몸에 얼음꽃 점이 핀다
달빛에 혈은 비늘은 너털거려
깜빡깜빡하는 정신이 차라리 어여쁘다
투명하게 빛나는 몸,
싱싱한 상처마다 포개지는 검은 멍들이
얼어 더욱 단단해진 파득거리는 정신이
자유로워지기 위해!
비명을 지르지 않는다

내 몸을, 매 혼을 잡아먹는 당신이
나를 할퀴는 당신이
햇빛에 나를 말리는 당신이
끝내 나를 해체시키는 당신이
달콤한 나의 체액을 먹는 당신이
냉정하고 단정하여, 눈을 감고 외면한다
당신은 햇바닥을 날름거리며
나를 사랑하고
나를 환생시킨다
건조되어 정지선 너머
회유하는 목숨이 빛난다

권순자 시인

경주출생, 2003년 <심상> 신인상으로 등단.

<포항문학> 회원 전 <문학>교사



» 04



» 10



» 12



» 18



» 22

2009 11 CONTENTS

- 04 **특집** | 제6회 월드로봇올림피아드
- 08 **기획** | 녹색성장으로 영일만 르네상스 연다
- 10 **포커스** | 막걸리의 부활
- 12 **포항칼럼** | 막걸리와 과메기
- 14 **우리 고장의 전래동화** | ⑨ 큰스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 16 **문화마당** | 공연, 전시, 행사, 단신, 기타
- 18 **글로벌포항** | 아시아 챔피언, 포항스틸러스
- 20 **시정브리핑** | 포항영일만항, 일본 동해안 노선 열렸다
- 23 **의정브리핑** | 포항시의회 복덕규 의원, 국회의장상 수상
- 24 **포항레이더** | 신종플루 예방접종 일정
- 26 **I♥POHANG** | 포항사랑카드로 우수인재 키운다
- 27 **지상갤러리** | 박종범 · 향리(鄕里)



과메기를 손질하는 과메기 덕장의 일손 사진 • 정미향

- 발행처 : 포항시 | 발행인 : 포항시장 박승호
- 편집인 : 공보담당관 방진모
- 편집담당 : 홍보기획팀장 김동완, 김경란
- 담당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앞길 100 Tel : 054 · 270 · 2334
- 발행일 : 2009년 11월 25일 (통권 76호)
- 기획·편집 | (주)금강미디어 Tel : 054 · 275 · 0558
- 인쇄 | 남진인쇄 Tel : 054 · 274 · 1567
- 홈페이지 : www.ipohang.org

※ 열린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포항! 글로벌 로봇시티로 비상하다

●●● 포항에서 펼쳐진 전세계 청소년들의 로봇 축제인 '제6회 월드로봇올림피아드 (World Robot Olympiad, WRO)'가 역대 최대 규모인 24개국 215팀 1,000여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막을 내려 포항이 국내 로봇산업의 메카로 더욱 탄탄한 입지를 굳힌 것은 물론 우리나라가 세계 로봇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포스텍 일원에서 11월 7·8일 양일간 열린 이번 WRO는 경상북도·포항시·포스텍이 주최하고, (재)포항지능로봇연구소, (사)대한창작지능로봇협회가 주관했다. 아울러 이 기간에 맞춰 로봇페스티벌, 포항과학가족축제가 동시에 열려 포항은 그야말로 첨단로봇과 천문과학의 전시장이 되었다. 이를 동안 포항은 1,000명 이상의 선수들과 10만 이상의 방문객이 어울리는 로봇축제의 도시가 되었고 로봇도시로 비상했다. ●●●



3



5



4

로봇을 꿈꾸는 인간, 인간을 꿈꾸는 로봇

WRO는 전 세계 청소년들이 로봇기술 경연을 펼치고 과학을 체험하는 대회이다. 이 대회를 통해 참가 청소년들은 다른 국가 학생들과 로봇을 매개로 우정을 나누고 글로벌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다. 특히 국제 경쟁력을 갖춘 로봇인재를 발굴함은 물론 과학 교육의 장이 되었다.

이번 WRO에서는 국내외 심판들이 참가하여 미션을 수행하는 경기부문에 철인3종(초등부), 로봇매치(중등부), 포켓볼(고등부) 3개 부문 1~3위 총 9개 팀, 사전 공지된 아티스트로봇을 주제로 창작한 로봇을 심사하는 창작 부문에 초·중·고등부 3개 부문에 1~3위 총 9개 팀, 심사위원 특별상 1팀, 경상북도지사 특별상 3팀, 포항시장 특별상 3팀 등 총 25개 팀이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총 50팀 164명이 참가한 한국은 일반경기부문에서 초등부 2위(죽마고우팀), 중등부 1위(화이트레고 팀), 고등부 3위(베리타스팀), 창작경기부문에서 초등부 2위(찰떡궁합팀), 중등부 2위(레이스팀)에 오르는 등 창작경기부문 고등부를 제외하고 모두 순위권 안에 드는 쾌거를 이루어 로봇 강국의 면모를 과시했다.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진 '로봇페스티벌'

WRO 부대행사로 개최된 로봇페스티벌이 열려 지능형 로봇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했다. 더불어 로봇에 관한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로봇시티 포항의 이미지를 확고히 구축했다.

이번 행사는 5가지의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리얼 존(Real ZONE)은 '실재하는 과학, 로봇체험의 장'으로 달리는 로봇투어 버스와 로봇강아지 제니보를 통해 로봇의 모든 것을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었다.

오픈 스페이스 존(Open Space ZONE)은 '모든 시민들이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포스텍체육관 앞 광장에 마련된 로봇 태권브이 포토존과 타투이

벤트를 비롯해 로봇아티스트 작품전 및 제작체험 이벤트, 로봇 조형물 전시 및 로봇 퍼포먼스, 한국지능로봇경진대회의 수상작 등이 전시되어 눈길을 끌었다.

비트 존(Beat ZONE)은 '박진감 넘치는 로봇 경연의 장'으로, 로보 라이프 체험관에서 관람객들이 로봇을 조종하며 즐길 수 있는 로봇 스포츠 게임이 펼쳐졌다. 로봇을 이용한 3대3 축구와 로봇 격투게임, 로봇 달리기 경주 등이 펼쳐졌다.

아웃 스탠딩 존(Out Standing ZONE)은 '한국을 대표하는 공연 퍼포먼스'로 국기원의 태권무 축하공연을 점심시간을 이용해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티치 존(Teach ZONE)은 '신기하고 기발한 세상 속으로'를 주제로 탐승이 가능한 로봇 '코난'을 이용해 어린이 관람객들을 위한 로봇탐승 체험 이벤트를 벌였다.

천문의 세계로 떠난 '포항가족과학축제' 인기만점

또 다른 연계행사인 포항가족과학축제가 11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포스텍 실내체육관 일원에서 열렸다. 이 축제에서는 천문을 주제로 한 전시, 시연, 체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6회째를 맞은 이번 포항가족과학축제는 과학문화를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천문관련 전시 및 시연행사, 체험행사, 참여행사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천문과 우주에 대한 지식을 심었고 즐거움도 선사했다.

EBS의 외계생명체를 찾아서, 태양 등의 우주 관련 영상 상영, 천문과 우주에 관련된 문제를 골든벨 식으로 진행한 도전 골든벨 퀴즈, 천문학과 관련하여 궁금증을 해소하고 진로 상담을 벌인 천문학자와의 만남, 별자리 영상이 상영되는 달 및 목성 영상 상영, '세계 천문의 해' 및 천문학 관련 특강 강연 등의 다양한 참여행사가 열렸다.

1 지난 11월 7~8일 포스텍 일원에서 제6회 월드로봇올림피아드 예 24개국 215팀 1,000여명의 선수가 참여했다

2 WRO에 참가한 전세계 청소년들은 로봇을 매개로 우정을 나누는 자리가 됐다

3 제6회 월드로봇올림피아드의 개막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이 진행되고 있다

4 로봇태권브이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외국 참가선수들

5 시상식을 끝내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세계

선진도시들은 지금 녹색성장에 열광하고 있다. 사실 녹색 성장, 즉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노력은 오래 전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녹색성장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전문가들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면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문화발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도시로 정의한다. 다시 말해 경제중심의 양적 성장이 아니라 환경과 복지, 문화를 경제와 같은 비중으로 다루는 질적 성장을 이루는 도시를 의미한다. 글로벌 도시를 지향하는 포항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전략사업으로 추진하여 영일만 르네상스를 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포항시는 민간이 참여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획실무위원회'를 구성했다. 기획실무위원회는 10월 7일 녹색성장 사업에 대한 점검은 물론 정부의 녹색성장 5개년 계획과 연계한 '녹색성장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적극 육성하여 포항을 글로벌 녹색선진도시로 만들

녹색성장으로 영일만 르네상스 연다

어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앞서 포항시는 동빈내항 복원사업을 녹색성장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고, 녹색성장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포스코·포스텍·RIST 등 지역 연구 인력을 활용하여 녹색 기술 및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생활 속 녹색혁명을 추진하기 위한 '포항시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포항시는 또한 '탄소포인트제'를 적극 실시하고 있다. 탄소포인트제는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 도시가스, 상수도 에너지를 절약해 이산화탄소(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면, 그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에너지 절약운동으로 이산화탄소 발생량 10g 절감 시 1포인트가 부여되며 포인트 당 3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10월 31일에는 해도근린공원에서 '탄소포인트제 회원가입 홍보행사'를 전개하는 등 시민을 대상으로 탄소포인트제 회원가입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10kg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전기사용량 4.24kwh, 상수도 3.3m³, 도시가스 사용량 27.8m³ 덜 써야하며 전기 300kwh, 가스 50m³, 수도 30m³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가정에서 10%의 에너지를 절감하였을 경우 8,270원의 인센티브 금액이 지급된다. 그리고 푸른포항21추진협의회도 지난 6월부터 전기, 가스, 수도물 등 생활 속 에너지 절약 등 저탄소 생활문화 조기 정착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생활실천 읍면동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포항시는 천연가스차량보급을 확대해 포항의 대기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다. 시는 2006년부터 19억5천만 원을 들여 시내버스 56대, 전세버스 9대, 청소차 10대 등 75대의 천연가스 자동차를 보급해 2009년 천연가스차량 보급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아울러 환경보전 실천의식 함양을 위한 녹색체험환경교육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포항 환경학교가 운영하는 체험교육에 지금까지 학생과 시민 등 6,000명이 참여했다. 올해는 1억5천만 원을 들여 지구온난화 홍보에 따른 태양광발전시설과 에너지체험관을 추가로 설치하여 이용객의 폭넓은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사용전기를 태양열로 자급해 저탄소 생태 학교로 자리매김 했다.

① 포항12경(景)에 선정된 아름다운 덕동문화마을과 포항시의 녹색성장 대표 브랜드인 동빈내항 복원사업 조감도

막걸리, 거침없는 하이킥

●●● 전통적인 '쌀 막걸리'는 물론 사과와 배를 이용한 '과일 막걸리'까지 그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 바야흐로 막걸리가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는 것이다. 포항막걸리도 거침없는 하이킥을 날릴 것으로 전망된다●●●



얼마전

에 있었던 한일정상회담 오찬에서는 막걸리로 건배를 했다.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릴 'G20정상회의'에서도 막걸리 건배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 막걸리 열풍이 불고 있다. 신문은 물론 방송까지 막걸리를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최근에는 막걸리를 주제로 한 박람회까지 열렸다. 막걸리가 편의점 3대 인기주로 등극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전통적인 '쌀 막걸리'는 물론 사과와 배를 이용한 '과일 막걸리'까지 그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해외에서도 인기다. 특히 일본에서는 막걸리가 식이섬유와 효모, 단백질, 무기질 등이 풍부한 '웰빙주'로 인기를 모은다고 한다. 여기에 국내산 쌀 소비 대책과 맞물려 과거의 영광이 재현될 조짐이다. 바야흐로 막걸리가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는 것이다. 포항막걸리도 거침없는 하이킥을 날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막걸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 포항시도 쌀 소비 감소와 쌀값 하락에 따른 농민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쌀 막걸리를 예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막걸리 열풍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사케나 독일 맥주는 100% 자국산 원료를 사용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막걸리, 약주 등에는 국내산 쌀의 비율이 7%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막걸리 열풍이 국내산 쌀 소비 확대에 연결된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내년부터 포항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서는 소주나 맥주 대신 지역의 쌀 막걸리가 사용된다. 또 직원들의 각종 모임에도 쌀 막걸리를 애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막걸리 소비운동을 사회단체와 각종 모임에도 전파되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포항시 쌀 소비 운동본부는 지난 10월 31일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친환경 농산물 품평회와 해도근린공원에 마련된 포항시자원봉사박람회에서 포항 쌀 및 지역 동동주(막걸리) 애용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지역 동동주를 알리기 위해 포항탁주합동제조장에서 마련한 동동주 시음회장은 많은 시민들이 몰려 호응을 얻었다.

특히 시음회에 참여한 청년층에서 우리의 전통기술로 발효 제조된 동동주를 마시고, 우리 쌀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어디서 구입할 수 있는지를 물으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에 앞서 포항시는 지역 내 양조장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쌀 소비 대책회의를 열어 막걸리 제조시 쌀 혼합비율을 상향 조절해 줄 것을 주문했다.

포항시는 쌀 막걸리의 경우 현재 외국산 쌀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내년 부터는 지역 막걸리 제조업체에 대해 지역 쌀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원가 상승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보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

1 일본 등 해외에서도 웰빙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2 지난 10월 31일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포항탁주합동제조장에서 마련한 동동주 시음회에 많은 시민들이 몰려 호응을 얻었다

막걸리와 과메기

| 글 | 박이득 · 포항예총 회장



입동은

지난 계절, 포항의 11월. 그것은 시민 모두에게 벽찬 감격과 기쁨, 그리고 그리움을 안겨주는 계절이다. 흥해, 신평, 청하, 송라, 기계, 기북 들판과 장기, 오천, 연일, 대

보 들판에서 가을 햇살에 익은 햇곡으로 빚은 막걸리와 영일만 먼 바다 청정 해역에서 잡은 콩치로 만든 과메기를 마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쯤 우리들은 저마다 술 익는 소리와 과메기의 숙성 소리를 가슴으로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막걸리는 말과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 국민주이다. 최근 일본을 비롯해 세계인들도 그 맛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여 건강주로 인정하기 시작해서 세계적인 명주의 반열에 오를 일도 시간문제라 보인다. 국내 여건도 쌀이 풍부하다 못해 남아돌고 있어 쌀 소비촉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우리들은 가난으로 쌀 막걸리를 한 번도 마음 놓고 먹어보지 못했다. 마음 놓고 먹기는 고사하고 수 십 년 동안 구경을 못했다. 쌀 막걸리 대신 옥수수나 고구마 막걸리로 가난에 찌든 마음을 달래 왔다. 요즘 젊은이들은 쌀 막걸리가 있었는지도 몰랐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쌀 막걸리가 돌아와 우리를 달래주고 있다. 정말 벽찬 일이다.

혹자는 술을 그렇게까지 예찬할 수 있는가 하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다. 그러나 막걸리는 우리 민족에게 술만이 아니었다. 배고픔을 달래줄 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들판에서, 공사장에서 고된 일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국민음료로 자리해 왔으며 애환을 함께한 위로주였다.

포항의 입동 계절은 또 가을전어가 돌아오고, 물 오른 오징어와 청어, 대구가 한 배 가득 실리고 등 푸른 고등어가 뱃전 가득히 누워 있으며, 정어리가 부두에 산처럼 쌓이기 시작한다. 어디 그뿐인가. 죽도 어시장 바닥에는 광어와 도다리가 퍼덕이고, 큰 고무대야마다 우럭과 잡어들이 서로들 고개를 치켜들고 아우성이다. “우리도 여기 있다”고. 승어는 높다랗게 튀어 오르고 장어와 문어는 나도 시장구경, 사람구경 좀 하자라는 듯이 마구 기어 다니고 있다. 입동은 지난 죽도시장은 사람이고 고기고 모두 다 이처럼 생기에 차 있다.

가을 고기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우리들의 가슴을 이렇게 설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에도 서서히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고기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콩치 과메기이다. 과메기는 아득한 옛날부터 이 고장 특유의 산물이요



1



2

명품이다. 과메기란 고기를 햇빛에 말리지 않고 그늘에 매달아 겨울에 얼고 녹기를 거듭하면서 반 건조 상태로 장만하는 고기를 말한다. 그러니까 건어물은 햇빛으로 말린 고기인데 비해 과메기는 달빛에 말린 고기이다. 달빛아래 얼고 녹기를 거듭하면서 숙성의 과정을 거치는 전설의 고기가 바로 과메기이다.

옛날에는 포항지역에서 주로 청어로 과메기를 만들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부터 청어가 크게 줄어들자 청어를 대신하여 물 좋은 콩치로 과메기를 만들기 시작,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과메기는 우리 지역의 고유 음식으로 1980년대 포항대학 어로과와 식품영양학과를 비롯해서 각처에서 면밀한 분석과 연구를 거듭했다. 당시 최초로 과학적 연구와 영양분석에 매달린 사람은 포항대학의 오승희 교수(어로과)인데, 오 교수는 과메기가 영양학적으로 최고의 식품이라고 격찬했으며 일 년 내내 먹을 수 있는 방법까지 고안했다.

그 뒤 배용일 교수(역사학), 박유식 교수(식품영양학) 등이 역사적 고찰과 현대식품으로써의 우수성과 특이성을 입증, 국민들에게 많이 먹도록 권유했다. 이들 일군의 교수들에 따르면 아득한 옛날부터 우리지역에서 만들어진 과메기의 우수성에 탄복할 수밖에 없으며 조상들의 위대한 과학성에 감탄을 거듭할 뿐이라고 했다. 이에 당시 대량생산, 대량판매에 나선 사람들은 포항시 공무원들과 어민들이었다.

그리고 대량생산, 대량판매에 성공을 거두자 박승호 포항시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과 지역 상공인, 어민들은 과메기 판매를 기업화하기 시작, 큰 성공을 거두어 2007년부터는 연 매출 1천억 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전국적 명성을 얻고 있다. 조상들의 지혜의 식품이 명품으로 이어지고 기업화로 성공한 식품이 바로 과메기이며 이제는 세계적인 식품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입동을 지나면서 콩치는 포항시 변두리 바닷가 덕장에 매달리기 시작한다. 스물 마리를 한 두름으로 해서 끝없이 매달려 찬 겨울 바닷바람을 맞으며 얼고 녹기를 거듭하면서 숙성된 과메기로 다시 태어난다.

과메기는 물미역과 쪽파, 미나리, 배추, 마늘, 고추를 만나면 더욱 감칠맛 나게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과메기가 제 맛을 내자면 우리의 막걸리를 만나야 한다. 어부들은 과메기 몇 두름과 막걸리 몇 잔이면 아무리 거친 바다도 두렵지 않고, 농부들은 지난 여름의 땀과 노고를 보상받고 긴 보리밭을 밟을 수 있는 힘이 솟는다고 했다. 또 공장 근로자들과 건설 공사장 인부들도 피로를 씻은 듯이 풀 수 있었다. 연인들은 막걸리 몇 잔에 과메기만 있으면 아무리 어렵게 꼬였던 사랑도 풀린다고 한다.

올 겨울 포항시민들은 막걸리 몇 잔과 과메기만 있으면 겨울 추위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고유의 음식인 막걸리와 과메기. 입동을 지난 석양에서 나는, 새삼 전통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깨닫는다.

① 기업화의 성공으로 세계적인 식품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과메기

② 과메기는 달빛아래에서 얼고 녹기를 거듭하며 숙성의 과정을 거친다

③ 포항탁주합동제조장에서 제조되는 포항지역의 막걸리



3

“저쪽

으로 비켜서시오!”
문지기가 절문 앞에 모여든 사람들을 마구 밀어내고 있었어요.
“우리도 큰스님 얼굴 한번 보게 해 주세요.”
“도대체 뭘 일이 있소?”

누덕누덕 누더기 옷을 입은 한 할아버지가 사람들과 함께 밀려나면서 물었어요.
“오늘 우리 절에 대선사 큰스님이 오시니 한쪽으로 물러나 있으시오.”
“효광아! 우리는 좀 더 올라가야겠다.”
할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잡아끌었다. 멍하니 문지기를 바라보고 있던 아이는 스님을 돌아보며 눈을 크게 떴어요. ‘뛰라고요?’ 라는 표정이었지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며 크게 또 또 박토박 일러 주었어요.
“원효암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러자 아이는 활짝 웃으며 크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세요, 보세요. 거기 노인장! 원효암에도 안 돼요.” 문지기가 손을 휘저으며 소리를 질렀어요.
“거기도 큰스님이 와요?”
“그곳에는 젊은 스님들이 머물 곳이에요. 큰절에는 손님이 딱 차서 말어요.”
“그럼 우린 어디서 봐야 하나요?” 한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저쪽 건너편 산비탈에 가시오. 그곳에서도 지나가는 큰스님이 보일 거요.”
사람들은 우르르 시내를 건너 산비탈로 몰려갔어요. 할아버지도 아이 손을 잡고 갔어요. 그곳은 북쪽으로 돌아앉은 응달이어서 으스스하게 추웠어요.
“오신다!” 누군가가 소리쳤어요. 모두들 산모퉁이 쪽을 바라보았어요. 서너 개의

화려한 가마가 줄지어 오고 있었어요. 맨 뒤에는 곡식 가마니와 상자 꾸러미를 가득 싣고 마차도 뒤따르고 있었어요.
“이제야 오시는 구나. 저 고운 가마 좀 보게. 저 뒤에 따르는 곡식더미 봐.”
“우리에게 조금씩 나눠 주실 지도 모르지요.”
“어디서 오신다고 했지?”
“임금님 계시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강화도 신월사에서 오신다지 아마.”
그렇게 떠드는 사이에 가마는 절문 앞에 닿았어요. 가마꾼들이 ‘꽁’ 하며 가마를 바닥에 내리자 사람들도 서로 보려고 고개를 빼고 기웃거렸어요. 그런데 내린 사람은 스님이 아니었어요. 비단 치마 저고리를 감은 귀부인이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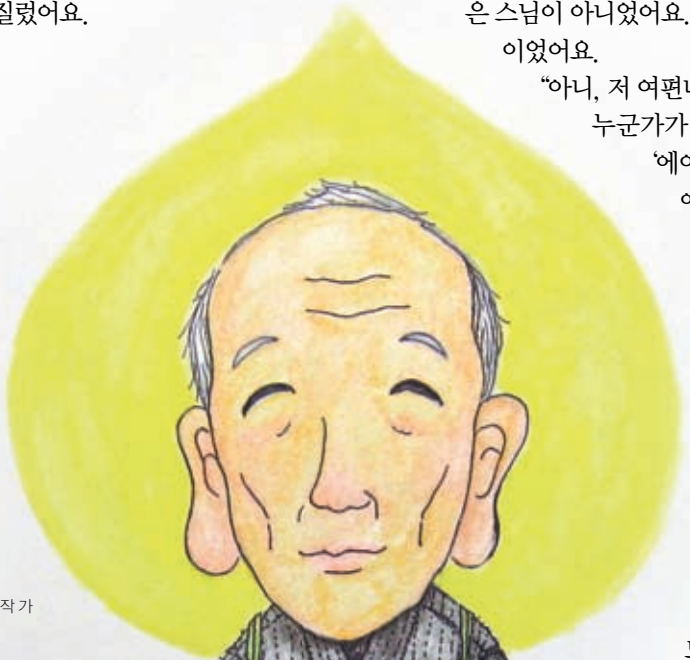
“아니, 저 여편네는 연일 홍순덕 마나님이잖아.”
누군가가 투덜댔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에이’ 하며 돌아섰어요. 두 번째 가마에서는 그 집 며느리가, 세 번째에는 딸이 내려서는 여종의 부축을 받으며 절 안으로 들어갔어요.
“왜, 그러세요. 저 사람들이 무슨 나쁜 짓이라도?”
곁에 있던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훑어보더니 특하니 내뿔었어요.
“이웃은 내 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큰스님 축원받겠다고 저리 나댄다우. 하기가 스님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 시주 많이 하는 홍순덕을 무시할 수야 없겠지.”

할아버지는 눈을 반짝거리고 있는 아이에게 또박또박 일러주었어요.
“이웃과 나눌 줄도 모르는 사람이 시주 바친다고 복이 오겠느냐?”
아이는 고개를 크게 가로저었어요.
“말을 못하는가 봐요.”
할머니가 혀를 끌끌찰 차며 아이의 등을 쓸어 주었어요. 그러자 아이가 할머니를 향하여 두 손을 모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도 환하게 웃으며 같이 손을 모았어요.
“할머니도 여기 앉으세요. 언제 올지 모르는 큰스님을 서서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할아버지는 걸옷을 벗어 깔며 자리를 권했어요.
“아니, 옷을 깔고 앉을 수는 없잖아요.”
“괜찮아요. 이웃보다 이 옷 더 귀하겠소.”
할머니가 앉으며 아픈 무릎을 ‘콩콩’ 두드렸어요. 이를 본 사람들도 서로 자리를 나누어 앉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인가 봐.”
멀리 산모퉁이에서 여러 필의 말이 달려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스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모두 긴 칼을 찬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겁을 먹고 숨을 죽였어요. 스님들이 우르르 달려 나와서 굽실거리며 맞이했었어요.
아이가 할아버지를 올려다보며 고개를 가웃거렸어요.
“큰스님이 오신다니까 고을 원님이 인사하러 왔는가 보다.”

“맞아요. 백성들은 보이지도 않고 오직 출세에 눈이 먼 원님이지요.”
할머니가 할아버지 말을 거들고 나섰어요.
“큰스님은 왜 이리 늦으시지? 슬슬 배도 고파 오는데” 사람들은 슬슬 지루해졌어요.
할아버지가 아이의 등을 툭툭 치며 말했어요.
“효광아! 네 등에 있는 떡을 걸 조금씩 나누렴.”
아이가 화들짝 일어나서는 자루를 풀더니 주먹밥을 조금씩 나누었어요. 그러자 여기저기서 보따리를 끌러 숨겨놨던 음식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활짝 웃었어요. 사람들의 얼굴을 둘러보던 할아버지 입에서 흥얼흥얼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몇 차례 거듭하자 사람들도 하나둘 할아버지를 따라했어요. 산을 덮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였어요. 그 노래는 마치 물고기 떼가 물풀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헤엄치는 것 같았어요.

새들이 하늘을 날면서 춤을 추었어요. 운제산 풀과 나무들도 우렁우렁 함께 했어요.
“아니, 저 음악소리는 대체 무엇이에요?”
절문을 가로막고 있던 스님들에게도 들렸어요. 노래에 이끌려 스님들이 달려 나왔어요.
“아니, 큰스님! 어찌 여기에 ……”
주지 스님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그 할아버지가 바로 일연 큰스님이었기 때문이지요.
“아니, 그럼 저분이 대선사님이시라고?”
원님도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 날 오에서에서 일연 스님과 함께 큰 기쁨을 누린 사람이 수천이었답니다.



| 글 | 김일광 · 동화작가
| 그림 | 최수정

큰스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 일연스님은 고려 원종(1264년)때 오에서에 오셔서 삼국유사 중에서 동해를 배경으로 일어나는 설화<이혜동진>조, <연오랑 세오녀>조, <탈해왕>조, <만파식적>조, <처용랑 망해사>조 등을 갈무리하셨음 ●●●





[행사]

»» 통기타와 함께

-상설브런치 차향이 있는 작은 음악회

- 주최주관 : 포항시
- 일 시 : 11월 25일 11:00
- 장 소 : 포항문화예술회관 1층 로비
- 프로그램 : 합창 및 통기타 포크송
- 차 봉사 : 포항차인회

»» 청소년 협주곡의 밤

- 주최주관 : 포항시
- 일 시 : 11월 26일 19:30
- 장 소 :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조수미의 「나와 함께 꿈을...」

- 주 최 : 포항시
- 주 관 : 포항문화예술회관 · 포항MBC
- 일 시 : 12월 4일 19:30
- 장 소 :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출 연 : 소프라노/조수미, 바리톤/서정학
반주/Mostly Philharmonic Orchestra 지휘/박상현
- 관 램 료 : VIP석 140,000원 / R석 120,000원
S석 100,000원 / A석 80,000원
- ※ 유료회원, 단체, 이주여성, 국가유공자, 장애인 30% 할인

»» 수능생을 위한 음악회

-포항시립합창단 72회 정기연주회

- 주최주관 : 포항시
- 일 시 : 12월 8일 19:30
- 장 소 :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출 연 : 포항시립교향악단/포항시립합창단
인기가수 섭외 중
- 프로그램 : 영화음악, 뮤지컬 명곡 모음

»» 2009 송년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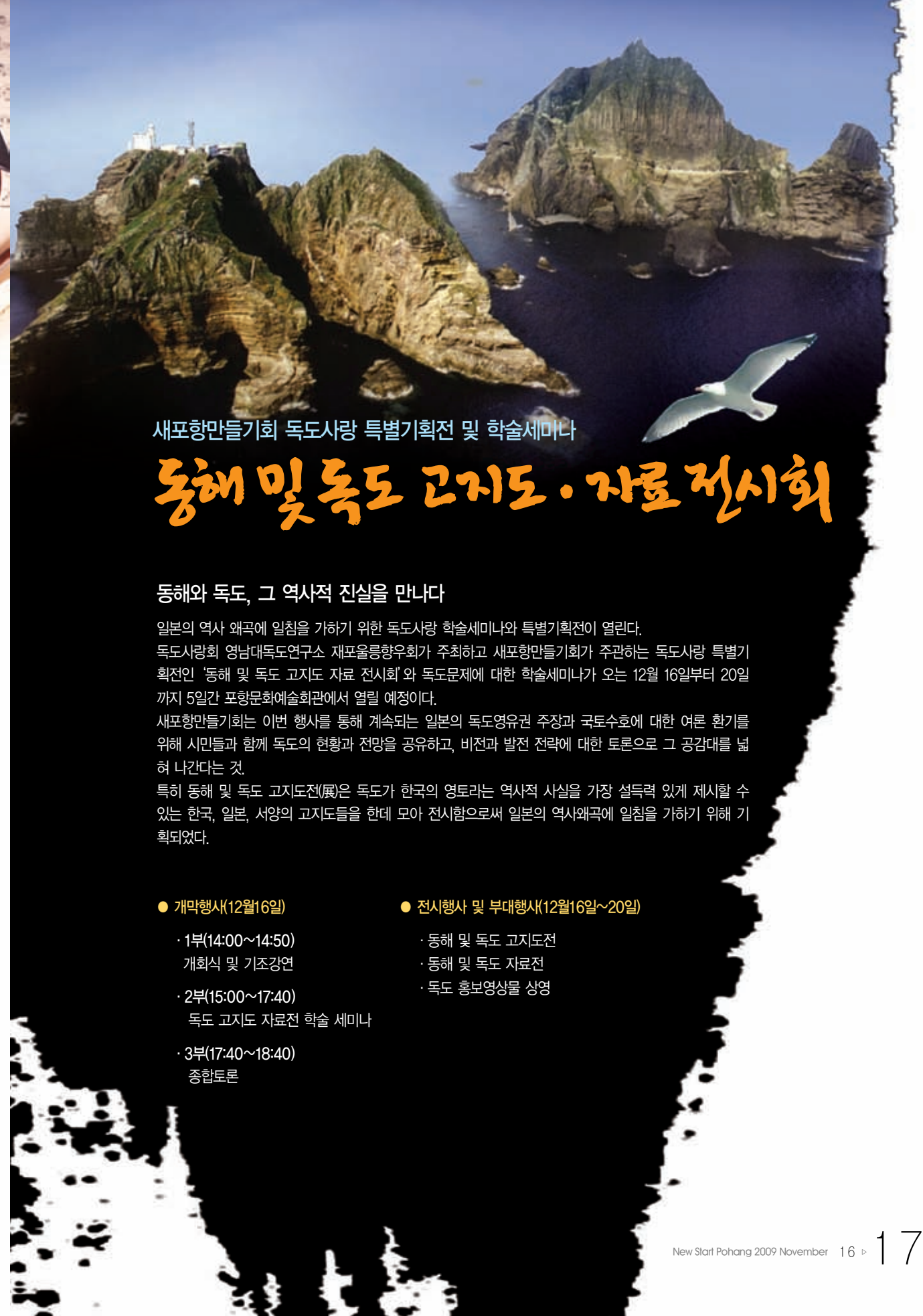
-포항시립교향악단 · 포항시립합창단 합동공연

- 주최주관 : 포항시
- 일 시 : 12월 22일 19:30
- 장 소 :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프로그램 : 크리스마스 캐롤 명곡
고별 교향곡/하이든 외 다수

»» 겨울 나그네-시와 가곡의 아침

-상설브런치 차향이 있는 작은 음악회

- 주최주관 : 포항시
- 일 시 : 12월 23일 11:00
- 장 소 : 포항문화예술회관 1층 로비
- 프로그램 : 슈베르트 겨울나그네(테너 독창, 피아노)
시낭송 및 해설



새포항만들기회 독도사랑 특별기획전 및 학술세미나

동해 및 독도 고지도 · 자료 전시회

동해와 독도, 그 역사적 진실을 만나다

일본의 역사 왜곡에 일침을 가하기 위한 독도사랑 학술세미나와 특별기획전이 열린다. 독도사랑회 영남대독도연구소 재포항분회 주최하고 새포항만들기회가 주관하는 독도사랑 특별기획전인 '동해 및 독도 고지도 자료 전시회'와 독도문제에 대한 학술세미나가 오는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새포항만들기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계속되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국토수호에 대한 여론 환기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독도의 현황과 전망을 공유하고, 비전과 발전 전략에 대한 토론으로 그 공감대를 넓혀 나간다는 것.

특히 동해 및 독도 고지도(圖)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역사적 사실을 가장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는 한국, 일본, 서양의 고지도들을 한데 모아 전시함으로써 일본의 역사왜곡에 일침을 가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 개막행사(12월16일)

- 1부(14:00~14:50)
개회식 및 기조강연
- 2부(15:00~17:40)
독도 고지도 자료전 학술 세미나
- 3부(17:40~18:40)
종합토론

● 전시행사 및 부대행사(12월16일~20일)

- 동해 및 독도 고지도전
- 동해 및 독도 자료전
- 독도 홍보영상물 상영



포항스틸러스 아시아 정상 등극, 이제 세계로 나간다



1



2

한국 프로축구를 대표하는 강철군단 포항스틸러스가 아시아 정상에 등극했다. 포항 구단은 11월 7일 일본 심장부 도쿄국립경기장에서 열린 사우디아라비아의 강호 알 이티하드와의 '2009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후반 12분 노병준, 20분 김형일의 연속골에 힘입어 2대1로 승리했다.

이로써 포항은 1997년, 1998년 2연패 했던 아시안 클럽 챔피언십에 이어 K-리그에서 가장 많은 통산 3번째 아시아 챔피언에 올라 축구 명가의 명예와 자존심을 이어갔다. 이날 경기의 MVP는 첫 골의 주인공인 노병준이 차지했다.

아시아를 정복한 포항은 11월 12일 명장 파리아스 감독의 제안에 따라 이색적인 소방차 카퍼레이드를 벌였다. 카퍼레이드는 이날 오후 4시30분 포항시청을 출발, 시외버스터미널, 육거리까지 이어졌다. 중앙상가에서 행사장인 포항역까지는 도보로 이동하며 환영 나온 시민들과 우승의 기쁨을 함께 했다. 굿은 날씨에도 수많은 시민들이 연도로 나와 아시아 챔피언인 강철전사들을 환영했다.

이날 저녁 6시부터는 많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역 광장에서 우승 축하연이 열렸다. 서포터즈와 시민들은 늦가을의 차가운 밤 날씨조차 뜨겁게 달궜다. 특히 구단은 시민과 함께 하는 우승 뒤풀이를 위해 통닭



3

500마리를 썼다. 구단 응원가를 만든 그룹 트랜스픽션의 축하공연이 열리는 등 아시아 정상 등극을 자축했다.

트레블을 넘어 큰일 한번 낸다

포항의 이번 우승은 구단 코치진 선수단이 땀과 노력, 도전이 이룬 결정체이다. 그리고 공격 축구, 깨끗한 경기 매너, 판정 수용 등 선진축구를 지향하는 '스틸러스 웨이(Steelers way)'의 결실이다. 포항의 축구는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포항스틸러스 웨이의 끝은 어디일까? 리그 컵 우승에 이은 세계클럽랭킹 70위 달성, 그리고 아시아 챔피언, 포항은 이제 K-리그 챔피언에 올라 '트레블'의 대업을 달성하는 역사가 남았다. 내친김에 이 기세를 몰아 '클럽 월드컵'에서 큰일을 내는 사건만 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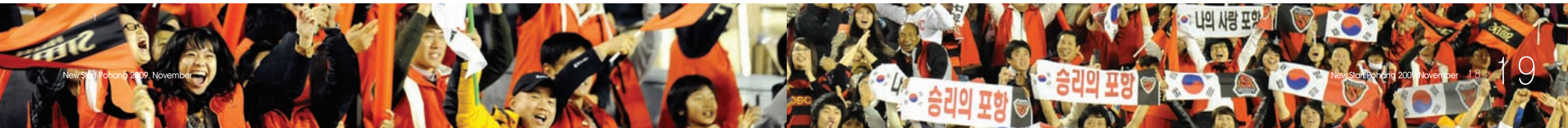
준 플레이오프의 승자와 포항은 11월 29일(일) 플레이오프를 치른다. 여기서 승리하면 12월 2일(수) 전북과 챔피언결정1차전을, 12월 6일(일) 챔피언결정2차전을 치른다. 포항이 2009 K-리그 챔피언에 오르면 우리나라 프로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트레블'의 대업을 이루게 된다.

이 여세를 몰아 12월 9일부터 19일까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세계 각 대륙을 대표하는 7개 팀이 참여하는 클럽 월드컵에서 다시 한 번 새로운 역사에 도전한다.



4

- 1 아시아 정상에 등극한 선수들의 '승리의 세레모니'
- 2 파리아스 감독의 제안에 따라 포항시내 일원에서 소방차 카퍼레이드를 벌였다
- 3 AFC 챔피언스 리그 시상대에 올라 환호하는 선수단
- 4 선수단이 중앙상가에서 포항역까지 도보로 이동하며 환영 나온 시민들과 기쁨을 함께 하고 있다
- 5 열렬히 응원하는 포항스틸러스 응원단



포스코로 오광장 일대 '빛과 물의 가로공원' 당선작 선정



포항시는 포스코로 오광장 일대에 빛과 물의 가로공원 조성공사 제안공모에서 디자인전문회사 인들디자인(대표 이선학)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이 작품은 '자연으로 열고 포항으로 채운 Cityscape Flowing Park'라는 주제로 빛과 물이 흐르고, 도시와 사람과의 소통을 꿈꾸며, 새로운 길, 새로운 도약, 멈추지 않고 흐르는 포항의 미래를 표현해 큰 점수 차로 당선작에 선정됐다. 심사위원들로부터 "상징물로 포항의 힘을 함축하고 빛과 물, 자연요소로 도심 속에 활기를 불어 넣고 있다"는 호평을 받았다. 이번 공모에는 서울, 부산 등 전국 7개 디자인 및 엔지니어링 회사가 작품을 접수했으며, 10월 30일 디자인학과 교수 등 7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당선작을 선정했다.

특히 이 사업은 포항상징거리 조성의 첫 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번 선정을 계기로 포스코로 일대 포항상징거리 조성 사업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AFC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이어 홍보까지 '대박'



포항은 '2009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함박웃음을 지었다. 포항이 포항스틸러스의 아시아 정상 등극에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바로 포항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월 7일 일본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AFC 챔피언스리그에서 포항이 우승을 차지하자 대부분 일본 언론이 8일자 스포츠면 헤드라인에 '浦項(포항)'의 이름을 올렸다.

포항시는 이날 경기장 내에 홍보부스를 설치해 일본 현지인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시는 포항관광 리플릿과 포항시 브랜드 CI가 삽입된 핸드폰고리 등을 전달하며 간단한 설문조사도 펼쳤고, 포항관광사진과 영상물도 소개해 홍보부스에는 일본인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번 우승과 성공적인 홍보활동

으로 일본인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월 14·15일 구룡포 일원에서 열린 제13회 과메기 축제에 많은 일본인 관광객들이 다녀갔다. 한편, 포항시는 11월 12일 시청앞 광장에서부터 포항역까지 소방차 카퍼레이드와 축하행사를 가지며 아시아 축구 정상에 오른 포항스틸러스 선수단 우승 환영식을 가졌다.

포항영일만항, 일본 동해안 노선 열렸다



영일만항이 국제항의 면모를 하나씩 갖춰가고 있다. 포항시는 10월 21일 시청에서 동영해운(주)와 영일만항 정기항로(선사)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으로 동영해운 소속 화물선 카리나스타호(9,150톤급)는 영일만항에서 울산과 부산을 거쳐 일본 오사카와 고베 등 일본 동해안 항구를 경유하게 된다. 영일만항은 지금까지 니카타 등 일본 서해안과의 물류교류는 구축했으나, 오사카-고베 노선 등 일본 동해안에 대한 노선은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만큼 이번 카리나스타호의 취항은 의미가 크다. 시는 영일만항 개항 이후 중국, 일본서안, 극동러시아 항로 개설과 함께 이번 일본 동안항로 뱃길이 열리면서 영일만항이 향후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으로 발전하는 신호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큐슈지역 인기 방송프로 '포항 특집'



일본 큐슈지역에서 인기 있는 방송 프로 중 하나인 TNC TV방송의 '모모치 하마 스토아'가 지역의 먹거리와 볼거리 등을 특집으로 다루기 위해 프로그램 진행자인 후쿠다 겐지 씨를 비롯한 제작진들이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죽도시장, 중앙상가, 호미꽃, 일본인가옥거리, 대게, 과메기 등을 취재했다. 구룡포 한 음식점에서는 대게와 성게알, 문어를 차려놓고 박승호 시장과 함께 1시간에 걸쳐 이들 해산물의 우수성과 생산량, 조리법 등을 카메라에 담았다. 한편, 포항시 홍보대사로 위촉된 후쿠다 씨는 "포항의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에 놀랐다"고 말했다. 꾸준한 인기로 지금까지 10년간 장수를 누리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매일 오전 9시 55분부터 1시간 동안 방송되며, 이번에 포항에서 촬영한 내용은 '켄짱의 관찰야요'라는 코너를 통해 11월 12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포항특집'으로 방송된다.

과메기 산업특구 '우수특구' 선정

포항구룡포 과메기 산업특구가 정부에서 실시한 지역특구 사업 평가결과 '우수특구'로 선정되어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 선정은 전국 102개 지역특구를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 평가, 주민참여도 등 지난 1년 동안의 특구운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뤄졌다. 과메기 산업특구는 과메기 산업특화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 확보, 적극적 홍보, 민간기업 유치 및 품질 고급화, 특구 지정 후 지속적인 판매량 증가, 브랜드개발을 통한 대내외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 시는 10월 28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기관표창과 포상금 5천만 원을 받았다.

곡강천, 생태하천으로 거듭난다

포항시는 2011년 10월까지 국비 61억 원을 포함한 10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곡강천을 생태복원구간, 생태친수구간, 생태보전구간 등 3개 구간으로 테마별 친환경 친수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상류부 4.36km의 생태복원구간은 하천수질을 저해하는 불법경작지를 철거하고, 기존 식생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수식물을 추가 식재하는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한다. 중류부

1.88km의 생태친수공간은 수질개선 및 수량조절을 위해 기존 고정보를 가동보로 변경 설치하고, 생태습지 및 자생식물 군락지를 이용한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다양한 레저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소공원 및 체육공원으로 조성한다. 하류부 4.36km의 생태보전구간은 칠포해수욕장이 접해있고 주변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 최소한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자연경관을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또한 전체구간 8.6km에 걸쳐 자전거 및 산책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포항시, 쌀 소비 확대에 '팔 걷었다'



포항시는 10월 20일 시청에서 농협, 민간단체, 쌀가공업체, 포스코, 교육청, 대형유통업체, 포스텍 연구기관 관계자 등을 위원으로 하는 '포항시 쌀 소비 운동본부' 발대식 및 현판식을 가진 데 이어 대책회의를 여는 등 쌀 소비 확대에 적극 나섰다. 이 본부는 앞으로 농협중앙회 포항시지부장과 포항시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쌀 소비를 위한 각각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쌀을 이용한 막걸리(동동주)산업 활성화와 쌀가공업 발굴·육성, 쌀국수 학교급식 확대, 홍보활동, 직판행사 등 구체적 쌀 소비 방안이 제시됐다. 이에 앞서 시는 지역 양조장들과 쌀소비 대책회의를 열고 막걸리 제조 시 쌀 혼합비율을 상향해 줄 것을 주문했으며, 유관기관 및 업체에 쌀 소비 대책 협조문도 발송했다.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보호합시다

포항시는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시는 산불 발생 시 조기출동과 초동진화를 위해 11월 13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산불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명예산림보호지도원 등 총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감시원 발대식을 겸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산불전문진화대 39명, 산불감시원 203명을 산불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해 산불감시 활동과 조기출동 및 초동진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산불 발생의 전개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처하는 새로운 산불예방 프로그램 운영체계도 구축했다. 또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산불방지 및 진화교육을 실시하고, 주요 국도변 및 등산로변에 현수막 및 깃발을 이용한 산불예방 홍보로 현실적인 산불예방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관 관람객 줄이어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관 관람객이 1만 명을 넘었다. 포항시새마을회는 11월 3일 1만 번째 관람객인 정상수씨(홍해읍)에게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관을 배경으로 제작된 벽시계를 선물로 증정했다. 이날 행운의 주인공인 정씨는 “평소 새마을운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을 존경했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 9월17일 개관 이후 어린이집 원생, 관내의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한국국제협력단을 통한 동남아 국가 연수생, 회사원, 군인, 초·중·고생, 가족단위 관람객 등 각계각층의 관람객들이 기념관을 찾고 있다.

▶▶▶ 포항시농업기술센터에 생태공원 있어요



포항시농업기술센터가 도시민들의 휴식공간인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실증농장 내 3,480㎡면적에 6천1백만 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하고 있는 생태공원은 생태연못과 습지, 견학로 및 포토존, 냉쿨식물터널, 원예치료실을 설치해 시민들과 방문객들에게 볼거리와 휴식처를 제공하고 있다.

▶▶▶ 교과서에 없는 한일사(韓日史)를 배우다



일본의 대표적인 일간지인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은 10월 24일자에서 포항 구룡포에 남아있는 일본인가옥들에 관한 특집 기사를 실었다. 이번 특집 기사에는 관광을 전공하는 일본 대학생들이 직접 구룡포 일본인가옥 거리 등을 방문했던 이야기가 함께 실려 화제를 모았다. 이 신문은 '100여 년 전 일본인이 살았던 거리

가 한국 포항시의 어촌 구룡포에 남아 있다'는 내용으로 구룡포를 소개한 뒤, 지난 8월말 간사이지방 3개 대학 학생 30명과 각 대학의 교수들이 함께 일본인가옥거리와 그 홍보관을 방문한 내용을 주로 다뤘다. 특히 구룡포 일본인가옥거리가 일본 학생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졌는지에 대해 집중 소개했으며, 포항시가 일본특별팀을 편성해 일본인 관광객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룡포를 방문했던 한 학생은 “교과서에는 실려 있지 않은 역사가 여기에는 있다. 일본인에게는 역사를 직시하려는 노력이, 현지주민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려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 동절기 입산 및 등산로 통제한다

포항시는 가을철 건조기가 시작되는 11월 15일부터 2010년 5월 15일까지 180일간 비학산 외 21개 지구에 대해 입산통제와 주요 등산로를 통제한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시민들에게 산림문화 체험과 등산객들에게 휴양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입산통제 기간 중에도 대각온천~운제산, 오서아~운제산, 대송 흥은사~운제산, 보경 사입구~향로봉, 신광 법광사~비학산정상, 기북 탐정 탐골~비학산, 기계 남계 하안국사~운주산, 기계 봉계 기도원~봉좌산, 기계 봉계 이릿재~봉좌산 등 9개 노선 등산로에 대해서는 개방한다. 입산통제기간 동안 개방된 등산로를 제외한 지역으로 입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성냥,ライター 및 버너 등 인화·발화 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할 경우에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오천읍민운동장·체육문화센터건립 '첫삽'



4만5천 오천 읍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읍민운동장 및 체육문화센터가 건립된다. 포항시는 11월 11일 오천읍 문덕리 현지에서 박승호 포항시장, 이상득 국회의원, 이상천 경북도의회위원장, 이상구 포항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유관기관단체장, 자생조직단체, 오천읍민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을 열었다. 이번 사업은 철강공단과 인접한 오천읍민과 남구지역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은 물론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시행하게 됐다. 시는 오천읍 산26-1번지에 2만1,339㎡ 부지에 총사업비 70억원 중 30억을 확보해 1단계로 읍민운동장을, 2단계로 체육문화센터 건립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오는 2012년까지 준공할 방침이다. 특히 인조잔디구장은 정식규격(세로105m, 가로68m)으로 조성되어, 각종 축구대회, 체육행사 등 다방면으로 사용 가능해 포항시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포항시의회 복덕규 의원, 국회의장상 수상



포항시의회 복덕규 의원이 국회가 10월 28일부터 3일간 실시한 2009년도 제5차 지방의회 의원연수 교육과정 중 '의정활동 모범사례 발표'로 국회의장(김형오)상인 우수상을 수상했다. 복 의원은 10월 29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발표'에서 자신의 대표 발의로 제정된 '포항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주민과의 약속이행과 관련된 주요 의정활동을 발표, 우수 의정활동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전국 광역 및 기초 지방의회에서 제출된 47건의 의정활동 사례를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 등이 1차 예비 심사를 거친 12건이 모범사례 발표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이날 전국 지방의회의원 146명이 참석한 발표회를 통한 2차 심사에서 우수상을 영예를 안았다. 복 의원은 의정활동 지침을 장애인, 저소득층, 비정규직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 권익에 우선 순위를 두고,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민원 처리와 사회봉사활동 등 주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 서민고통 분담 위해 해외연수 전격 취소

포항시의회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사정을 감안, 의원해외연수를 전격 취소했다. 시의회 보사산업위원회(위원장 최용성) 위원 10명과 의회사무직원 4명은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 4박 5일 동안 대만, 홍콩 등 2개국의 노인복지시설 및 수산시장, 농업개량장 등 농수산시설 견학을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이처럼 해외연수를 포기한 배경에는 신종플루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서 해당 상임위원회가 해외연수를 실시하는데 따른 부담과 '민생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시의회가 해외연수에 나설 경우 자칫 시민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결정되었다. 한편, 최용성 보사산업위원장은 "1차 산업을 주로 다루는 소관 상임위원회로서 어려움에 처한 농어민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 해외연수를 전격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며 "반납하는 해외연수 비용 2,200여만 원을 집행부와 협의하여 농어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으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 제159회 임시회 폐회



제159회 포항시의회 임시회가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10월 21일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정호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포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강학중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포항시 운영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20일 열린 총무경제위원회는 집행부로부터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참여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요구는 금융권의 실익만 주장하는 것으로 사업성이 높게 평가된 만큼 다소 늦어지더라도 11월에 재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보사산업위원회는 '포항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보다 종합적인 검토 후 지역 실정에 적합한 조례로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건설도시위원회는 '폐철도부지 도시숲 조성사업'에 대해 자전거도로가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선교를 존치하고 여성아이비원 앞 지하통로 설치하는 시민들의 통행안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 필리핀 마스바테주 국회의원 일행 방문



포항시의회는 10월 28일 필리핀 마스바테주의 안토니오 코 국회의원 및 엘리사 코 주지사를 포함한 9명의 방문단을 접견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방문단은 의회 본회의장을 비롯하여 의원실 등을 둘러보고 양도시의 공동번영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이상구 부의장은 환영인사와 함께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도시가 가진 장점을 살려 인적, 물적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한다면 앞으로 양도시의 발전은 물론 양국의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1월 8일부터 시내버스 노선 일부 조정

포항시는 11월 8일부터 흥해와 양덕동의 신주거지역 입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175번과 109번 시내버스 노선 일부를 조정했다. 175번은 하루 10회 운행에서 19회로 증회 운행되며, 대신 100번 지원버스는 폐지하고 첫차와 막차시간도 조정된다. 109번은 양덕 신주거지역을 경유하여 연장 운행하며, 연장구간은 풍림아이원~포항대학~남광하우스로 남측~현대아파트 구간이다.

불임부부에 희망을!

포항시는 출산장려를 위한 불임치료사술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은 법적 혼인상태로 부인연령이 만44세 이하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2인 가족 기준 470만원)의 불임가정으로 1회 시술시 150만원 지원(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회 270만원)되며, 최대 3회까지 지원가능하다.

[문의 : 남구보건소(270-4058), 북구보건소(270-4137)]

행정안전부,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모집

모집인원은 1만 명 중 포항시 137명이며 국민제안 등에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고 국정참여에 관심이 많은 20~50대 주부여성으로서, 회의 및 워크숍 참석 등 모니터 활동에 지장이 없고 인터넷 및 컴퓨터를 활용한 기본적인 문서작성 가능자이다. 활동기간은 2010년 2월부터 2011년 1월까지이며 모집기간은 2009년 11월 9~30일이다. 지원방법은 Oklife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원서 작성. [문의 : 행정안전부(02-2100-3815), 경상북도(053-950-2228)]

11월 포항시민교양대학

- 일 시 : 2009년11월25일(수) 오후2시
- 장 소 :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강 사 : 맹명관(중소기업 혁신연구소 교수)
- 주 제 : “희망을 마케팅하라”
- 대 상 : 포항시민 누구나 (무료), 10분 전까지 입장

[문의 : 포항MBC(289-0122), 평생학습과 (270-2871)]

민생안정지원서비스, 클릭 한번으로 OK~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들이 정부 부처의 민생지원 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민생안정지원서비스포털 「희망길잡이넷(http://www.hope4u.go.kr)」을 개설했다. 정부 각 부처별, 기관별 민생지원서비스를 앞으로 희망길잡이넷 한 곳에서 통합 정보를 찾아보고 온라인 상담도 받을 수 있다.

2010년부터 경찰12가 더 빨라집니다!

- 범죄로 인해 인명·재산을 위협받을 시 국번없이 '112'로 신고하면, 모든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출동합니다!

- 긴급 상황이 아니라도, 범죄수사, 경미한 교통사고 등 경찰의 현장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가능한 신속하게 출동합니다!
- 경찰관의 신속한 출동에 지장을 주는 허위 장난 비범죄성 생활민원 신고를 자제해 주십시오!
- 긴급 범죄신고 외 경찰관련 민원은 1566-0112(경찰민원정보 안내센터), 타기관 민원은 110(정부민원안내 종합콜센터)을 이용합니다!
- 범죄신고인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합니다!
- 범죄신고의 생활화로 가정과 사회의 안전을 지킵시다!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한 금지행위

- 산림이나 인접지역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 산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들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 산에 들어갈 때 화기 및 인화·발화 물질을 소지하는 행위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으려면 읍면동 허가를 받음
- 논·밭두렁에 대한 불농기는 기간을 정해 마을공동으로 허가
- 산행에 앞서 반드시 관할 읍면동에 입산이 가능한지 확인

[문의 : 도시녹지과 (054-270-3241)]

폐결핵환자를 위한 X-선 연중 무료 검진

- 검진대상 : 2주 이상 기침, 객담, 혈담이나 객혈 등이 있는 자
결핵환자와 동거 또는 밀접 접촉하였던 자
결핵고위험군이나 결핵검진을 원하는 자
- 검진방법 : 흉부 X-선 촬영 및 객담검사

[문의 : 남구보건소(270-4062), 북구보건소(270-4162)]

도로명 주소 건물 번호판 부착 안내

14개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2009년 11~2010년 2월 중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건물번호판)을 부착사업을 시행한다. 건물번호판 부착이 누락된 건물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있다.

[문의 : 도시계획과 새주소담당 (270-3491~4)]

내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2만원 인상

보건복지가족부는 2010년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지급대상이 되는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수준)을 70만원(노인부부 가구 112만원)으로 고시했다. 2010년도 4월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10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 2개월 전에 주소지 주민센터에 연금을 신청하면 된다.

겨울철 폭설에 미리미리 대비합시다!

- 설해대비용 안전장구(체인, 모래주머니, 삽 등) 사전 준비
- 주택지붕, 비닐하우스, 축사, 수산시설 등 노후시설 사전 점검

- 라디오, TV 등을 청취해 기상 수시 파악으로 피해 예방
- 겨울철 사전대비기간 : 2009.10.16 ~ 2009.11.30

[문의 : 포항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080-351-3650)]

신종플루 예방 접종 대상자별 일정(안)

일 정	대 상 별	접종방법	비 고
10월 27일부터	거점병원	자체접종	
10월 30일부터	방역 등 전염병대응요원	보건소	
11월 5일부터	의료종사자	자체접종	1차 우선접종자
11월 5일부터	보건교사,수능감독관	보건소	
11월중	항바이러스제 조제 약국	보건소	신종플루치료 조제약사
11월 16일 이후(4주간)	초,중,고 학생	학교출장접종	
12월 중순부터	영유아 6개월~6세 미취학아동	위탁 병의원	사전예약
	임산부	위탁 병의원	사전예약
2010년 1월 중순부터	만성질환자	위탁 병의원	사전예약
	65세이상 노인	보건소 위탁 병의원	접종대상자 장비관리본부에서 일괄 파악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보건소	
	의료급여수급권자	보건소	
	담,오리 폐지 사용농가	보건소	
	검역소	자체접종	
	출입국관리사무소	보건소	
	세관	보건소	
	북부경찰서	보건소	
	군부대(송라,청하)	국방부	
소방서	보건소		
2010년 2월이후	일반인	병의원	
시행계획	■ 65세이상노인,의료급여수급권자 읍·면 : 5일간(보건소접종) 동 : 8일간 동별(보건소접종)		
	■ 사회복지시설거주자 : 출장접종,거동가능자 보건소접종		
	■ 기타 대상자 : 1일 ~ 2일 소요		

[문의 : 남구보건소(270-4031), 북구보건소(270-4131)]

제48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상징물 공모

- 공모기간 : 2009년11월12일 ~ 12월11일(1개월간)
- 공모부문 : 5개 부문(앰블럼, 마스코트, 포스터, 구호, 표어)
- 응모자격 : 전 국민 누구나(자격 제한 없음)
- 시 상 금 : 12,000,000원
- 응모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체육지원과 체전준비IT/팀 270-2796,5633)
- 기타사항 : 포항시 홈페이지(www. ipohang.org) 고시공고란

포항 열린 학교 신입생 모집

- 수업과정 : 한글반00명, 중등 고등반 00명(검정고시 준비반)
- 입학자격 : 일반성인 및 비진학 청소년
- 학 습 비 : 무료(입학금 및 교재비 일부 본인 부담)
- 모집기간 : 12월 15일까지
- 전형방법 : 학교 직접 방문 원서 접수

- 입학상담 : 283-6696, 283-6676(저녁7시~10시 상담가능)

내고장 포항사랑 카드로 장학기금 동참

- 추진기간 : 2009. 11월 ~ 2010. 6월
- 대 상 : 공무원, 유관기관, 단체, 기업체, 시민 등
- 추진기관 : 포항시, 한국일보사, KB국민은행
- 장학기금 : 카드 발급 1매당 1만원, 사용액의 0.2% 적립
- 개인혜택 : SK주유소에서 주유 시 리터당 60원 할인, 패밀리 레스토랑 10% 할인, 이동통신요금 매월 1,000원 할인, 학원업종 이용 시 최대 5%할인, 백화점/할인점 2~3개월 할부무이자

해병(군)대 각급 후보생 및 부사관 모집

- 모집일정 - 사관후보생 : 2009.10.26~11.13
예비장교후보생 : 2009.11.16~12.04
여군 부사관 : 2009.12.01~27
남군 부사관 : 매월 15일까지

[문의 : 홈페이지 참조 http://www.rokmc.mil.kr]

반려견에 이름표를 무료로 달아드립니다!

- 기 간 : 2009.11.9 부터 선착순 배부
- 장 소 : 시청 농축산과(270-2722), 남구청 농림과(270-6341), 북구청 농림과(270-7341)
- 수 량 : 2,000개(마리)
- 개와 함께 외출할 때(동물보호법)
· 인식표(이름표) 부착(소유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표시)
· 목줄 착용(도사견, 롯트와일러 등 맹견5종은 입마개 착용)
· 배설물 처리봉투 가지고 다니고 배설시 즉시 수거

포항시기독교교회연합회, 사랑의 쌀 나누기

- 일 시 : 2009년12월14일(월) ~ 18일(금) 5일간
매일 오후1시 ~ 4시(3시간)
- 나눔 방법 및 품목 : 위 기간 중 1인 1회 백미 10kg한정지급
- 위 치 : 육거리 중앙상가 입구
- 주 관 : 포항시기독교교회연합회, 포항성서화운동본부

[문의 : 242-0690]

주민등록증 이제 우편으로 받으세요

앞으로 주민등록증을 신규 또는 재발급 받는 경우 가정이나 직장 에서 우편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주민등록증을 우편으로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신규 또는 재발급 신청 시 '우편수령'란에 체크하고, 주민등록증을 받을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우편요금 3,000원과 함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내고장 포항사랑카드 이용으로 지역의 우수인재 키웁시다!

포항시는 한국일보와 국민은행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내고장 사랑 운동'에 동참하는 협약식을 가졌다. 11월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박승호 포항시장, 이종승 한국일보 사장, 박중호 국민은행 동대구영업지원본부장, 이상구 포항시의회부의장, 김진일 포항제철소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 참석자들은 카드발급 신청서를 직접 작성했고, 포항시 공무원들의 카드신청서 550매와 함께 전달했다. 시는 이날 협약을 시작으로 내년 6월까지 공무원과 유관기관, 단체, 기업체, 시민을 대상으로 내고장 포항사랑카드 발급에 적극 동참을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포항이 고향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0월 5일 내고장 사랑카드 신청서에



서명을 하고 고향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흔쾌히 동참했다.

▶▶▶ 포항시장학회, 금년도 장학생 292명 선발

포항시장학회는 10월 26일 2009 장학생 선발을 위한 장학위원회 회를 열고 고교생 67명, 대학생 225명 등 총 292명을 선발했다. 이번 선발은 성적평가 50점, 생활정도 50점 등 100점 기준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가정, 장학금 3회 이상 기부자에 대해 가산점을 주어 평가했다. 선발 장학생에게는 고교생 1인당 50만원, 대학생 1인당 100만원 등 총 2억5천8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한편, 장학회는 10월 28일 장학금 기탁식을 가졌다. 이날 장학금 기탁식에서는 행복한 가게(대표 강희성, 임영숙)가 2009년도 바자회 수익금 1천500만원, 저탄소 녹색성장 풍력발전기 생산업체인 (주)동국 S&C(대표 정학근)가 1천만원, 포항향토청년회(회장 박용선)가 300만원과 현혈증 510매, 자유총연맹 포항지회(지회장 김광석)가 200만원을 각각 기탁했다.

▶▶▶ (주)SNG 초록봉사회, 이웃사랑나누기 동참

(주)SNG 초록봉사회(회장 서영진)는 11월3일 연탄 2천400장과 쌀 8포(20kg)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다. '2009 사랑의 연탄 나누기 행사'로 추진된 이번 행사는 겨울철 난방비 마련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연일을 관내 저소득층 중 연탄사용 8세대를 선정하여 지원했다.

▶▶▶ 사랑나눔 집수리사업 협약식 가져

'희망발전 프로젝트 사랑나눔-집수리사업' 협약체결식이 11월 5일 시청에서 포항시장과 남정채 포항MBC사장, 대림산업 현장소장, SK건설 현장소장, 두산건설 현장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체결식은 포항MBC의 제안에 따라 이뤄졌으며, 포항에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 중인 SK, 두산, 대림산업 등이 참여의사를 밝혀왔기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업체들은 저소득 가구 28세대에 대한 집수리를 무료로 하게 된다.

▶▶▶ 죽도동 희망근로 참여자들 이웃돕기 나서

희망근로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자신들보다 더 딱한 처지에 있는 이웃돕기에 나서 훈훈한 귀감이 되고 있다. 죽도동 희망근로 참여자들은 십시일반으로 50만원의 성금을 마련, 사랑의 온도계 높이기에 써달라며 죽도동 주민센터에 전달했다. 이에 김진택 동장은 "작은 정성을 모아 큰 사랑을 만들어 준 희망근로 참여자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 포항연오랑로타리클럽, 사랑의 집 고쳐주기

포항연오랑로타리클럽은 10월 30일 동해면 임곡리의 한 장애세대(세대주 원팔 절단, 노모, 처, 초등자녀2명) 사랑의 집 고쳐주기 준공 행사를 가졌다. 이번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클럽 창립 10주년을 맞아 특별한 봉사활동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클럽은 그 전까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위해 매달 시로 성금을 보냈지만 올해부터는 성금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더 많은 봉사를 실천한다는 차원에서 직접 착공했다. 당초 200여만 원을 투입하여 지붕수리만 하기로 했으나 회원들의 성금 등으로 1000여만 원을 들여 지붕개조, 거실, 창고까지 증축하게 되었다.

▶▶▶ 자장면으로 훈훈한 사랑 나누어요

북구 죽장면 남여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10월 14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한 달 동안 관내 23개 마을 경로당을 찾아가 자장면 제공 봉사활동을 펼쳤다. 협의회는 지난 한 해 동안 고철 및 헌옷 등 재활용품 수집으로 마련한 자체기금 700만원으로 관내 경로당에 자장면 제공 봉사활동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중국음식점을 경영했던 이 협의회 지윤식 부회장이 자장면 요리솜씨를 발휘해 자연부락 23개 경로당을 순회하며 경로당 어르신과 마을주민들에게 직접 대접했다.



| 제목 | 향리(鄉里) | 크기 | 90.9X 72.7 cm | 재료 | Oil on Canvas



박종범 Park Jong Bum

한국미술포항지부회원전(96년-현재) / 심현회전(89년-현재) / 미목회전(93년-현재) / 그 외 전람회 다수출품 / 포항문화예술회 관초대 3인3색전(09.8.18-8.23) / 2009중국 허남성미술교류전 출품 / 교원예술실기대회금상, 은상 / 경북도전 추천작가 / 2008 올해의 작가상수상

가을과 겨울사이

가을이 서둘러 지나간다는 소문은 듣고 있지만 여전히 가을을 보지 못했다. 며칠을 두고 찬비가 내렸지만 큰 굴참나무 숲에는 아직 빗물에 지워지지 않은 폴벌레 소리가 남아 있는 듯 하다.

작품이 작가의 삶을 닮기 마련이듯 박종범의 풍경에는 그런 늦가을의 냄새가 난다. 따뜻한 불씨가 그리워지는 삶의 언덕 위에 옹기종기 낮게 엮여진 사람의 집들.

그는 단순히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쫓는 풍경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의식이 내재된 향리의 풍경 속에 감상자의 시선을 개입시킴으로써 추수가 끝난 어느 11월의 풍경으로 우리의 감성을 이끌어 내고 있다.

[김갑수 포항시립미술관장]